

전일동향

전일대비 1.40원 상승한 1,452.6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40원 상승한 1,452.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0원 상승한 1,452.50원에 개장했다. 상승 출발한 환율은 트럼프 관세 경계감에 따른 달러 강세에 1,455원까지 레벨을 높였다. 다만, 오후장에서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네고 물량 출회 등 수급 부담이 완화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452.6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5.8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52.50	1455.80	1451.80	1452.60	1453.50
엔화	955.00	957.96	951.83	952.10	-	
유로화	1495.69	1508.01	1493.87	1505.37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14	-5.58	-12.9
결제환율(수입)		-0.55	-4.73	-11.24	-24.7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 부담 완화에...1,45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52.60) 대비 0.60원 하락한 1,450.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 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밤 달러화는 파월의장의 금리인하 신중론에도 고점 인식 매도, 유로 강세 등에 0.36% 하락한 107.93pt에 마감했다. 파월의장은 상원 청문회 자리에서 금리인하 신중론을 강조했다. 추가적인 매파 신호가 부재하여 달러 강세 흐름이 진정되었다. 한편, 유로존 가스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슈나벨 ECB 이사의 금리인하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유로화는 강세 전환했다. 유로화는 달러대비 0.54% 상승하며 달러 약세에 기여했다. 금일 환율은 방향성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달러 약세와 CPI 관망세가 이어지며 하락 분위기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46.20 ~ 1455.2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01.5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60원 ↓
	■ 美 다우지수 : 44593.65, +123.24p(+0.2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3.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15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